

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

(서면질문)

【교육지원과장 : 김의숙 / 장학사업지원팀장 : 문영아 / 주무관 : 행정 8급 강희민】

연락처(☎) : 2600-6917

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

1. 강서구청의 장학회 지원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는 없는지? 평균 1명이 업무를 담당하는 타 구와 달리 강서구만 3명으로 구성된 팀 전체가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, 장학회 인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

□ 답변내용 ----- (교육지원과)

-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.
- 강서구청은 「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(재)강서구장학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강서구청 공무원이 장학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거 규정으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.
- 이에 행정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강서구장학회에 인력을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「지방재정법」, 「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」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행정지원 조례 제정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.(※ 2023. 3. ~ 4. 법률자문 결과)
-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이 강서구청 직원의 근무 규정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분명한 근무 규정에 근거하여 장학회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상위법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을 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3개 자치구 장학재단 근무 인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서울시 자치구 장학재단의 근무 인력은 결재권자인 팀장을 포함하면 평균 2.2명인 것으로 나타났고, 그 중 2023년 기준 100명 이상 선발한 7개 재단(은평구, 마포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송파구, 종로구)은 평균 2.4명이 연평균 1.4회의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.
이 중 민간재단인 종로구장학회의 경우 2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수여식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강서구장학회는 팀장 포함 3명의 공무원이 연평균 3회의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는데,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후원해주시는 강서구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여식 개최는 필요하다는 것이 이사회의 입장입니다.
- 또한 강서구장학회는 설립 이래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학금 수요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장학제도를 발굴하고 지원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. 올해도 선발 예정 인원 대비 36명을 더 선발하여 총 287명을 선발하였습니다.
- 따라서 서울시 타 자치구 장학재단의 인력 현황, 강서구장학회의 규모와 성장세를 살펴보았을 때 강서구청의 인력이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수여식 개최 여부, 선발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등 각 재단별 업무 상황에 따라 필요 인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인력의 수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장학생 선발 및 수여식 개최, 장학기금 관리, 기타 장학회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위하여 현 수준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나 재단 운용소득(이자소득)만으로는 자체 인력을 채용할 수 없으므로 장학회가 지금과 같은 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재정자립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강서구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이 점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, 향후 인력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학회와 강서구청 간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.